

# 大嘗會和歌와 儒者

신미나<sup>\*</sup>

sparklingmi@hotmail.com

## Contents

1. 머리말
  - 1.1. 大嘗會和歌의 차례와 구성
  - 1.2. 作家的 변천
  - 1.3. 儀式歌와 儒者
2. 맺음말

## Abstract

大嘗會とは、天皇が即位後はじめて行う新嘗祭の事である。その年の新穀をもって、天照大神及び天神地祇を祀る、一世一度の大祭である。祭式は四日にわたる。十一月卯の日、天皇は大嘗宮に臨御になって、悠紀殿、主基殿における神祭を親しく行う。辰の日、悠紀の節会、巳の日、主基の節会、午の日、豊明の節会にて終わる。この大嘗會儀式において、悠紀・主基の兩齋国から詠進される和歌を、大嘗會和歌と呼んでいる。風俗歌十首と屏風歌十八首とからなっている。大嘗會和歌の形式は三条天皇のときから整い、作者もはっきり分かる。古くは歌人が、途中からは儒者が、多く用いられたが、次第に六条家の歌人と日野家の儒者ということが通例となる。大嘗會和歌における儒者の起用は、平安中期に流行った和漢兼作の風潮を背景とした、朝廷儀式の世界における官位を重視する形式主義の結果とみることができる。儒者の起用は吉例として残り、以後儒者が大嘗會和歌を読むという故実が定着することになった。国風文化の時代を通して、和歌は漢詩文と同等の地位を得て、宮廷儀式に取入れられるようになったといわれる。が、大嘗會和歌の世界にみえる儒者の活躍は、漢詩文が持つ伝統的な權威がなおも貴族社会に根強く残っていたことを意味する。大嘗會和歌のような儀式歌の世界ではなおさらこの權威が必要とされた。朝廷の儀式に内在する形式と先例を重視する政治觀念が、儒者の起用および故実化という結果に結び付いたと言えるだろう。

**Key Words** : 大嘗會和歌、儒者、儀式、形式、先例(다이조예와카, 유자, 의식, 형식, 선례)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일본사전공

## 1. 머리말

다이조에(大嘗會)는 천황이 즉위한 후 처음으로 행하는 니나메사이(新嘗祭)이다. 그해에 새로난 곡식을 차리고, 天照大神과 天神地祇를 모시는 한 대에 한 번 뿐인 큰 제사다. 다이조에의 일정이 정해지면 먼저, 제단에 차리는 신성한 곡식을 바칠 국(國)을 전국에서 2곳 선정한다. 이를 사이코쿠(齊國)라고 하는데, 한쪽을 유키(悠紀)라 하고, 다른 한쪽을 스키(主基)라 한다. 우다천황(宇多天皇)의 다이조에까지는 사이코쿠에 선정되는 國郡을 점으로 정했지만, 다이고천황(醍醐天皇)의 다이조에부터 유키는 오미(近江), 스키는 단바(丹波)와 빗추(備中)가 교대로 뽑히는 식으로 고정된다.

제사는 전부 4일에 걸쳐 진행된다. 11월卯의 날은 다이조에의 神祭가 행해진다. 천황이 大嘗宮에 행차하여, 유키전과 스키전에서 몸소 제사를 지낸다. 나머지 3일은 연회가 열린다. 辰은 날은 유키국의 연회가 열리고, 巳의 날은 스키국의 연회가 열리고, 午의 날 도요아키(豊明)의 연회가 열리면서 모든 일정을 수료한다.

한편, 다이조에 의식에서 유키와 스키, 양쪽 사이코쿠에서 바친 와카를 다이조에와카라고 부른다. 이치조천황(一條天皇)까지는 형식이나 노랫수가 일정하지 않았지만, 1012년(長和元年)산조천황(三條天皇)의 다이조에를 계기로 풍속 노래 10수, 병풍노래 18수로 정착한다. 풍속노래는 다이조에 의식중 유키와 스키, 양쪽 사이코쿠의 가인가녀들에 의해 연주된다. 병풍노래는 辰일과 巳일에 열리는 연회를 장식하는 야마토그림 병풍에 적는 노래들이다.

현재 宮内庁書陵部가 소장하고 있는 「大嘗會悠紀主基詠歌」와 「大嘗會和歌部類」는 다이조에와카가 가장 많이 실려있는 집성서이다.<sup>1)</sup>닌묘천황(仁明天皇)의 다이조에와카에서 시작하여, 중간에 몇 대에 걸쳐 누락도 보이면서 에도시대 모모조노천황(桃園天皇)까지 보인다. 「大嘗會悠紀主基詠歌」에는 다이고천황(醍醐天皇)부터 모모조노천황(桃園天皇)에 이르는 다이조에와카의 작가일람도 들어있다. 이에 따르면 다이조에와카는 원래 유명한 가인이 불렀는데 고이치조

1) 「大嘗會悠紀主基詠歌」는 『新編国歌大観』第10卷補遺編(角川書店)과 『神道大系』文学編3 神道和歌(神道大系編纂会)에 전문이 번각되어있다.

천황(後一條天皇)이후 유자가 작가에 더해지고, 이후 가인을 능가하는 활약을 보이고 있다.<sup>2)</sup>유자작가 중에는 오에노마사후사(大江匡房)나 후지와라노아쓰미쓰(藤原敦光)등 당시대를 대표하는 유자가 대부분 거론되어 있다. 지금껏 和風 일것이라 생각되는 다이조에와카의 세계에서 유자의 활약은 가인을 훨씬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이조에와카에 관해서는, 병풍의 회화적 가치에 주목한 미술사적 연구나 와카의 내용이나 성격을 분석한 국문학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sup>3)</sup> 작가에 관해서는 우선 가인쪽이 주목을 받아서, 井上宗雄와 佐々木孝浩가 일찍이 로쿠조가(六條家)의 가인작가를 검토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sup>4)</sup>유자작가에 주목한

2) 율령제하의 유교교육은 式部省에 속하는 관리양성을 위한 최고교육기관인 大學寮가 중심이었다. 大學寮의 수업과목은 紀伝, 明經, 明法, 算道의 4가지였다. 원래는 논어, 효경 주역, 상서, 예기 등 유교경전을 배우는 명경도(明經道)가 중심이었지만, 헤이안 초기부터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등의 역사서와 문선(文選)등의 문학을 배우는 기전도(紀伝道)가 크게 성행했다. 기전도를 전문으로 배우는 학생은 대학료를 졸업한 뒤에 다시 擬文章生—文章生(20인)—文章得業生(2인)의 코스로 진급하여 対策, 及第한 후 관리로 진출했다. 大學寮는 중세 후기에 오면 유명무실해 지지만, 당대에 있어서는 유학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다. 스가와라(菅原), 오에(大江)등 유학을 전문으로 하는 누대의 집안 자손이라 할지라도 대학료의 문장생 혹은 문장득업생 코스까지 수업한 후에 비로소 관리로 임용받았다. 헤이안시대와 중세를 통하여, 大學寮에서 유학을 전문적으로 수업한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는 儒者 혹은 儒士였다. 고기록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小右記』天元5年2月4日 「右衛門尉大江匡衡、儒者當仁、」

万寿2年3月18日 「又関白書亭令會儒士作文云、」

『中右記』寛治4年4月27日 「儒者、行家朝臣・成季朝臣文章博士・敦基朝臣文章博士・在良式部少輔、」

永長元年3月25日 「儒士式部大輔正家(藤原)朝臣、」

『猪隈関白記』建久9年1月20日 「前駟夾名刑部大輔菅原在高朝臣(儒者)、」

『薩戒記』応永29年11月1日 「大納言兼宣、草之、當時第一儒者也、」

고기록에서는 儒士보다 儒者로 표기한 예가 훨씬 더 많이 보인다. 또한 儒者와 文章生등 大學寮의 學生을 따로 표기하는 예도 보여, 儒者의 경우, 大學寮를 나와서 관직에 출사한 사람을 일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儒者는 名儒, 儒宗 등으로 불렸다. 한편, 당시의 기록에서는 儒學者라는 표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당시대에 유학을 전문적으로 수업한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儒者를 사용하겠다.

3) 秋山光和(1941) 「大嘗会屏風について—平安時代『やまと絵』研究の一節—」 『美術研究』118, 후일 『平安時代世俗画の研究』(1964, 吉川弘文館) 에 「大嘗会悠紀主基屏風」로 所収

藤田百合子(1978) 「大嘗会屏風歌の性格をめぐって」 『国語と国文学』

八木意知男(1986) 『大嘗会和歌の世界』皇学館大学出版部

相馬万里子(1990) 「大嘗会和歌について」 『神道古典研究12』

4) 井上宗雄(1986) 「大嘗会和歌と六条家」 『講座平安文学論究』第3輯、風間書房

연구로는, 白河天皇부터 四條天皇까지의 유자작가를 검토한 仁木夏實의 논문이 있다.<sup>5)</sup> 仁木는 각각의 유자가 다이조에와카의 작가로 선정된 배경으로 섭관가 및 당대의 권력자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이조에와카에 있어서 유자의 활약을 논할 경우에 궁극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질문은, 왜 가인이 아니고 유자가 다이조에와카를 부르는 것이 이상적으로 여겨졌는가, 유자는 다이조에라는 의식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정작 이를 묻는 연구는 행해지지 않았다. 유자라는 존재가 다이조에라는 천황의 즉위 의식 속에서 갖는 정치적, 문화적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다이조에와카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절차를 검토한 다음 작가로 활약한 유자들의 특징과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조에와카를 유자가 부르는 고실이 어떻게 창출되고 고정화되어 갔는지 밝힘으로써, 다이조에와카에 있어서 유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1.1. 大嘗會和歌의 차례와 구성

후지와라노키요스케(藤原清輔)가 저술한 歌學書 『袋草紙』는 다이조에와카의 기원, 작가, 노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순서를 기술하고 있는데, 먼저 다이조에의 기원과 사이코쿠 선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sup>6)</sup>

다이조에는 天武天皇의 白鳳2년11월에 시작하는데, 단 와카는 안 보인다. 와카는 仁明天皇(仁明天皇)代부터 생겼다. 단 노랫수는 적었던것 같다. 유키와 스키를 담당한 나라는 처음에는 단바(丹波)와 하리마(播磨)였다. 그 후 이나바(因幡), 미노(美濃), 오와리(尾張), 도토미(遠江), 다지마(但馬), 오미(近江), 비젠(備前), 미마사카(美作), 예치젠(越前), 미카와(三河), 이세(伊勢), 빗추(備中), 등이 담당했다.

佐々木孝浩(1988) 「六条藤家から九条家へ一人磨影と大嘗会和歌一」 『芸文研究』53、慶応義塾大学芸文学会

5) 仁木夏實(2005) 「大嘗会和歌と儒者」 『文芸論叢』64、大谷大学文芸学会

6) 후지와라노키요스케(藤原清輔)는 로쿠조가(六条家)의 가인으로 仁安3년 다이조에와카의 작가를 근시했다. 『袋草紙』는 1157년경에 성립한 歌學書로 歌會作법, 고실, 일화등을 집성했다. 이 논문에서는 新日本古典文学大系(岩波書店)의 『袋草紙』를 사용했다.

칙명이 내리면 그 나라의 군을 정한다. 단 좋은 이름의 군 한 두군대를 적어서 이를 내리는가. 근래이후, 유키국은 오미(近江)뿐이고 스키국은 단바(丹波)와 빗추(備中)가 교대로 담당한다. 단 레이제이천황(冷泉天皇)의 경우, 스키국은 하리마(播磨)였다.<sup>7)</sup>

덴무천황(天武天皇)의 다이조에는 『日本書記』天武天皇 白鳳2년 12월5일조에 기사가 보인다. 또한 닌묘천황(仁明天皇)이후의 다이조에와카는 『古今集』이하의 칙선와카집에 산존한다. 897년(寬平9년)다이고천황(醍醐天皇)의 다이조에이후 유키국은 오미(近江)가, 스키국은 단바(丹波)와 빗추(備中)가 번갈아 선정되는 식으로 고정되었다. 다음은 다이조에와카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자.

유키와 스키 양국에서 그 나라의 명소를 행사변에게 제출하면 작가에게 보내진다. 작가는 와카에 어울리는 지명을 선택하여(불길한 지명은 피해야 한다), 와카를 만들어 행사변에게 제출한다. 행사변은 작가가 제출한 풍속노래를 樂所에 보내고(이 노래를 바탕으로 음악을 만든( ), 병풍노래를 繪所에 보낸다(이 노래를 병풍에 적는다). 만약 와카의 제출이 늦어질 경우, 지명에 題詞만 적어서 먼저 내고, 와카는 나중에 제출한다.(이 다이시는 작가가 생각한다). 풍속노래만 먼저 제출하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다. (이하 생략)<sup>8)</sup>

작가는 유키와 스키 양쪽 사이코쿠에서 제출한 풍토기에 열기된 지명중에서 특히 상스러운 이름을 골라서 와카를 만든다. 이는 다이조에와카가 천황의 즉위를 축하하고 재위하는 동안 태평성대가 이어질 것을 기원하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sup>9)</sup>유키쪽의 노래에는 유키국의 지명이, 스키쪽의 노래에는 스키국의 지명이

7) 『袋草紙』二一 「大嘗會,天武天皇御宇白鳳二年癸酉十一月始之、但歌不見、而自承和御宇出來、但歌數少々歟、勤悠紀主基國々、其初丹波、播磨也、其後、因幡、美濃、尾張、遠江、但馬、近江、備前、美作、越前、參河、伊勢、備中、隋令下用其郡、但書嘉名郡一兩下之歟、近來以後、偏悠紀主國近江、主基國丹波、備中替々勤也、但冷泉院時、主基國播磨也、

8) 『袋草紙』二十一、大嘗會歌次第 「先從國々註進所々名於行事弁、以下作者許、作者撰便宜所々名可避禁忌、諷詠之進行事所弁、以風俗歌下樂所、以之人々作樂、以屏風下繪所、以之書圖之、若和歌有遲々之時、所々名書詞先進之、和歌ハ追進之、件詞作者計之、又風俗歌許々進常事也、」

9) 藤田百合子は 다이조에와카의 지명이 歌枕가 아닌 풍토기에서 선정되는 것은, 지명이 와카

각각 1수1곳씩 들어간다. 풍속노래는 樂所에 보내져서 곡이 붙여지고, 병풍노래는 繪所에 보내져서 노래에 맞춰서 그림을 그린다.

사이고쿠를 점치는 시기는 보통 다이조에가 행해지는 해의 4월이고, 이어서 작가가 선정된다. 「大嘗会悠紀主基詠歌」에 실린 와카에 첨부된 날짜를 보면, 10월말에서 11월중순까지가 대부분이다. 長和5년 11월15일에 다이조에를 행한 고이치조천황(後一條天皇)의 경우, 작가인 스케치카(輔親)와 다메마사(爲政)는 11월2일에 와카를 제출했다.

풍속노래는 원래 각국의 백성들이 부르던 민요적인 성격의 노래가 궁정의 연회나 의식에 도입된 것이다. 다이조에와카의 경우, 이치조천황(一條天皇)까지는 풍속노랫수가 고정되지 않고 매회 변화를 보이지만, 산조천황(三條天皇)의 다이조에에서 처음으로 유키와 스키 각각 10수라는 형식이 나타난다. 이후 고스자쿠천황(後朱雀天皇)의 유키11수의 예를 제외하면, 모두 유키 스키 각각 10수라는 형식을 답습한다.

풍속노래의 구성은 稻春歌 1수、神樂歌1수、辰日풍속노래4수、巳日풍속노래4수의 계10수로 이뤄진다. 辰日과 巳日의 연회에 연주되는 풍속노래는 각각 參入音聲歌, 樂破歌, 樂急假, 退出音聲歌로 짜인다. 이하, 1159년(平治元年) 니조천황(二條天皇)의 다이조에에서 유키국 작가를 근시한 후지와라노토시노리(藤原俊憲)가 지은 풍속노래를 예로 들겠다.

神樂歌 三上山

あをにぎてみかみのやまのさかきばにとりかけてこそちよをいのらめ  
(삼베페백을 미카미산의 사카키앞에 걸고 천세를 빌리라)

同日樂急 余吾海

よごのうみのくはこくはくとなるまでにわがすべらぎのみよはかはらじ  
(요고바다가 다 빠질때까지 우리 천황의 치세는 변함없으리라)

同日退出音声 千坂浦

きみがよのかずにはしかじかぎりなきちさかのうたのまさごなりとも  
(천황의 치세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끝없는 치사카포의 모래라고 할지라도)

적 측면보다 정치적 측면을 강하게 가진 것을 암시한다고 한다. 즉 다이조에와카는 처음부터 천황에 대한 정치적 칭송을 본의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前掲논문, p.59)

이러한 노래가 다이조에 의식중에 실제로 어떻게 연주되었는지는 다이조에의 절차를 기록한 『儀式』이나 『西宮記』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풍속노래를 연주하는 가인은 남녀 각각 20명씩 양쪽 사이코쿠에서 선발한다. 卯日부터 午日까지 매일 한번씩 각고쿠시(國司)가 가인을 이끌고 입장해서 노래를 부른 뒤에 가인들은 퇴장한다. 『西宮記』大嘗會辰會에 보이는 풍속노래의 연주풍경은 다음과 같다.

풍속악인이 들어온다. 고쿠시이하 앞쪽에 남자 20인, 뒤쪽에 여자 20인이 선다. 아악을 연주하는 가녀들이다. 악인들은 제일 끝에 선다. 연주하면서 노래를 한다. 쇼요코(鉦鼓)를 가지고 가인이 천막안으로 들어온다. 고쿠시가 천막에 자리잡는다. 풍속가무를 연주하고 퇴장한다.<sup>10)</sup>

한편, 병풍노래는 산조천황(三條天皇)의 다이조로부터 등장한다. 이때는 유키 12수밖에 없었지만 다음 고이치조천황(後一條天皇)의 다이조에 유키, 스키 각각 18수가 등장하고, 이후 고스자쿠천황(後朱雀天皇)의 스키12수의 예를 제외하면, 매회 양국 18수씩의 형식으로 고정된다.

『西宮記』를 보면 다이조에의 병풍은 辰日이후의 연회에 이용된다. 천황이 행차하는 豊樂殿의 동서에 설치되는 유키와 스키의 천막둘레에 세워진다. 『北山抄』에 의하면 辰일에 천막의 동서에 4尺병풍을 세우고, 乾北良의 3방향에 5尺병풍 4帖을 세운다고 한다.<sup>11)</sup> 다이조에에 사용하는 병풍은 5尺4帖의 본문(本文)병풍과 4尺6帖의 아마토에(和繪)병풍으로 매번 새로 제작한다.<sup>12)</sup>

10) 「風俗樂人參入、国史以下、前男廿人、後女廿人、雅樂歌女也、樂人立最後、且行且歌、持鉦鼓歌人入幄、国司就帳、奏風俗歌舞退出、」

11) 본문병풍과 아마토병풍이 정확히 언제부터 다이조에 등장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北山抄』의 다이조에 辰日條에 「장의 동서에 4척병풍을 세운다. 乾北良의 3방향에 5척병풍4첩을 세운다. 天慶의 기록에 의하면 장의 良방향에 5척병풍 1첩을 세우고, 乾방향에 2첩을 세운다. 그중 1첩은 돌려서 세워 隱所로 했다고 한다. (御帳東西、立四尺屏風、乾北良三方、立五尺屏風四帖、天慶記云、御帳良角立、五尺屏風一帖乾角立同屏風二帖、其一帖立廻為隱所云々)」고 보인다. 天慶記는 天慶9년의 村上天皇의 다이조에 기록을 말하는 것으로, 이 때 이미 5척병풍, 즉 본문병풍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故実叢書, 明治図書出版)

12) 『兵範記』仁安3년 12월10일. 仁安3년 高倉天皇의 다이조에에 관한 기록이 여러날에 걸쳐 보인다. (増補史料大成, 臨川書店)

본문병풍에는 중국의 전적에서 인용한 상스러운 문구와 그에 맞춘 그림이 그려지고, 아마토그림 병풍에는 양국의 지명과 풍물을 읊은 와카와 그에 맞춘 그림이 그려진다.<sup>13)</sup> 와카는 당대의 능서가가 색지에 청서하여 아마토그림 병풍의 위쪽에 붙인다.<sup>14)</sup> 병풍노래는 한첩당 3수, 계 18수의 노래가 이루어진다. 지명과 함께 각 계절별 연중행사, 자연풍경등이 노래속에 들어간다. 실례로 위에서 본 풍속노래의 작가 후지와라노도시노리(藤原俊憲)의 병풍노래를 보도록 하자.

甲帖 正二月

龜岡有人採若菜

わが君のよろづのはるのはじめにはまづかめをかにかわかなつみけり  
(우리군주의 수많은 봄의 시작에는 우선 가메오카에서 새싹을 뜯으리)

乙帖 三四月

粟津原緑草深有放馬之人

こまもみなあはづのはらにはなつめりちのりのゆきのをさまれるよは  
(말도 모두 아와즈들판에 풀어놓겠구나 한 없는 눈이 그치는 세상은)

丙帖 五六月

吉田郷人雨中採早苗

あめのしたをさめますたのしきによしだのさとのさなへをぞとる  
(비속에서 수확하는 즐거움에 요시다향의 모를 뽑는다)

가메오카(龜岡), 아와즈하라(粟津原), 요시다코(吉田郷)등의 지명과 새싹뜯기, 모내기 연중행사, 녹초와 방목 같은 계절감 풍부한 자연풍경이 노래속에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조천황(三條天皇)이후 다이조에와카는 풍속 노래 10수, 병풍노래 18수라는 형식으로 정리된다.

13) 다이조에병풍 본문은, 『兵範記』仁安3년9월1일의 기사 및 『群書類從』公事部に 실려있는 後朱雀天皇의 다이조에병풍 본문을 통해서 실례를 알 수 있다.

14) 가마쿠라 시대까지 서도로 제일 유명한 집은 藤原行成을 시조로 하는 世尊寺流다. 世尊寺流의 伊行가 저술한 『夜鶴庭訓抄』「悠紀主基御屏風書人々」는 다이조에 병풍의 색지에 와카를 청서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



## 1.2. 作家의 변천

다이조에 와카의 작가는 「大嘗會悠紀主基詠歌」의 大嘗會和歌作者例에 다이고천황(醍醐天皇)부터 모모조노천황(桃園天皇)까지 실려있다. 또한 『袋草紙』에 고코천황(光孝天皇), 그리고 산조천황(三條天皇)부터 고토바천황(後鳥羽天皇)까지 실려있고, 『八雲御抄』에도 다이고(醍醐)、레이제이(冷泉)、엔유(円融)、그리고 산조천황(三條天皇)에서 준토쿠천황(順徳天皇)까지 실려있다. 산조천황(三條天皇)부터는 신뢰할 수 있으나 그 이전은 불분명하다.<sup>15)</sup> 「大嘗會悠紀主基詠歌」의 大嘗會和歌作者例에 기초한 작가일람표를 마지막에 실겠다.

산조천황(三條天皇)까지는 유명한 가인이 작가로 기용되었다. 오나카토미노 요시노부(大中臣能宣), 다이라노가네모리(平兼盛), 기요하라노모토스케(清原元輔)는 모두 三十六歌仙에 꼽히는 헤이안중기의 유명한 가인이다. 각각 가집 『能宣集』 『兼盛集』 『元輔能』이 전한다.

1016년(長和5年) 고이치조천황(後一條天皇)의 다이조에에 유키쪽 작가로 오나카토미노스케치카(大中臣輔親), 스키쪽 작가로 요시시게노다메마사(善滋為政)가 발탁되었다. 다메마사는 가인이 아닌 유자로 당시 그의 관직은 구라노가미(内藏頭)였다. 다이조에와카에 처음으로 유자가 등장한 것이다. 『袋草紙』에서도 다이조에와카 작가를 열거하면서, 다메마사의 이름밑에 「後一條院, 儒者始從此時」라고 고이치조천황(後一條天皇)의 다메마사부터 유자작가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주를 넣고 있다. 다메마사의 와카는 拾遺集이하에 4首가 들어있다.

고스자쿠천황(後朱雀天皇)의 다이조에에도 작가에 유자를 한 명 넣는 방침은 지켜졌다. 유키는 고이치조천황(後一條天皇)때와 같은 스케치카(輔親)가 담당했지만 스키는 다이가쿠노가미(大學頭)후지와라노요시타다(藤原義忠)가 담당했다. 이후 고레이제이(後冷泉), 고산조(後三條), 시라카와(白河), 호리카와(堀河), 도바(鳥羽), 스토쿠(崇徳)의 6대에 걸쳐서 유자 두명이 작가를 근시하는 예가 계속되었다.

1046년(永承元年) 고레이제이천황(後冷泉天皇)의 다이조에에는 시키부다이후

15) 秋山는 三條이전의 작가는 후대사람들이 종종의 재료에서 만들어낸 부분일 것으로 보고, 美材나 道風은 『夜鶴庭訓抄』에 나오는 병풍색지필자를 그대로 와카작가로 채록한 것으로 추측한다. (前掲논문, p.89)

(式部大輔)후지와라노스케나리(藤原資業)가 유키를 담당하고, 문장박사(文章博士)후지와라노이에쓰네(藤原家経)가 스키를 담당했다. 이에쓰네는 스케나리의 형인 히로나리(廣業)의 아들이다. 이들은 우치마로류후지와라씨(内磨流藤原氏)이고, 히로나리때에 처음으로 儒門에 들어간 신흥유자 집안이다.<sup>16)</sup> 『尊卑分脈』을 보면 스케나리와 이에쓰네의 경력에 유자와 함께 가인의 경력도 보인다.

스케나리의 와카는 현재 41수가 전해지는데 대부분이 다이조에와 우타아와세(歌合)에서 부른 노래들이다. 1035년(長元8年)5월16일에 열린 関白左大臣頼通歌合에서 스케나리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우타아와세의 전일에 와카의 제목을 미리 선정해서 제출하고, 당일은 왼쪽 3번째 작가로 나와서 1수 부르고 있다. 또한 이날의 우타아와세 일기와 와카의 서문도 집필했다. 다이조에와 카를 읽기 전부터 스케나리는 가인으로서 그 실력을 상당히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쓰네 또한 1049년(永承4年)内裏歌合와 同5年祐子内親王家歌合에 출연하고 있다. 이에쓰네는 『和漢兼作集』에 작품을 남기고 있을 뿐 아니라, 後拾遺集 이하의 勅撰集에도 17수 들어 있으니 이 역시 적은 수는 아니다. 이후 오랫동안 다이조에와카에 있어서 우치마로류(内磨流)유자의 활약이 계속된다.

1068년(治暦4年) 고산조천황(後三条天皇)의 다이조에는 前가이노가미(甲斐守)후지와라노사네마사(藤原實政)와 前지쿠고노가미(築後守)후지와라노쓰네히라(藤原経衡)가 작가가 되었다. 이들 두명도 우치마로류(内磨流)의 유자로 『尊卑分脈』에 가인의 경력이 보인다. 쓰네히라는 스케나리(資業)의 형인 기미나리(公業)의 아들이다. 사네마사는 고산조천황(後三條天皇)의 동궁학사를 14년간 근시하고 양위한 후에는 인시(院司)로도 활약한 천황의 측근이다. 사네마사가 가이노가미(甲斐守)로 부임할 때 당시 동궁이었던 고산조천황(後三條天皇)이 시를 보낸 일화는 유명하다.<sup>17)</sup> 또한 쓰네히라는 和歌六人党의 한명이고, 後拾

16) 우치마로류는 히로나리류(広業流)와 스케나리류(資業流)로 나뉘어서 발전하는데, 이 중 스케나리류는 중세에 히노가(日野家)로 칭해진다.

17) 『今鏡』司召し

「大式実政は、東宮の御時の学士にて侍りしを、時なくおはしませば、かまえて、参り寄らぬ事にならむと思ひけるに、さすが痛はしくて、甲斐の守に侍りければ、かの国よりよりに参るまじき心がまへしけるに、下りける銭せさせ給ふとて、

遺이하에 16수 입집해 있으니 와카에 대한 소양을 짐작할 수 있다.

시라카와천황(白河天皇)의 다이조에 작가는 유키는 전과 같은 좌중변(左中弁) 후지와라노사네마사(藤原實政), 스키는 동궁학사(東宮學士) 오에노마사후사(大江匡房)가 담당했다. 오에씨(大江氏)는 스가와라씨(菅原氏)와 더불어 헤이안시대를 대표하는 누대에 걸친 유자집안이다. 오에노마사후사는 오에씨중 유일하게 다이조에와카에 작가로 활약한 사람으로 원정기를 대표하는 대학자이다.

조정 의법령과 의식을 집성한 『江家次第』나 불전을 섭렵한 『続本朝往生伝』 등 다기에 걸친 광범위한 문학활동으로 유명하다. 和漢의 학문에 뛰어나고, 고실에 정통하여 고산조(後三条), 시라카와(白河), 호리카와(堀川), 도바(鳥羽)의 4대에 걸쳐서 중용받았다. 마사후사가 죽었을 때 후지와라노무네타다(藤原宗忠)는 일기속에 「3대의 侍讀을 근시하고, 才智 타인을 능가하고, 문장 따를 사람이 없고, 그야말로 천하명경이다」고 평했다.<sup>18)</sup>

後拾遺하 勅撰集에 백여수가 들어있고, 『江師集』에 의하면 歌道에도 밝으니 詩才도 歌才도 당대 隨一이라 할 수 있다. 마사후사는 이후 호리카와(堀川), 도바(鳥羽)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작가를 근시한다. 유자작가중 3대에 걸쳐 근시한 예는 마사후사(匡房)와 뒤에 나오는 후지와라노나가노리(藤原永範), 후지와라노쓰네미쓰(藤原經光), 후지와라노토시미쓰(藤原俊光)의 네사람 밖에 없다.

호리카와천황(堀河天皇)의 다이조에서 스키를 담당한 前아와노가미(阿波守) 후지와라노유키이에(藤原行家)는 1046년(永承元年) 고레이제이천황(後冷泉天皇)의 다이조에와카 작가를 근시한 이에쓰네(家經)의 아들이다. 도바천황(鳥羽天皇)의 다이조에 스키를 담당한 시키부다이후(式部大輔) 후지와라노마사이에(藤原正家)가 역시 이에쓰네의 아들로 유키이에의 형이다. 마사이에는 承暦2年内裏歌合、永承6年侍臣詔合에 참가하고 内裏歌合에서는 殿上일기를 집필했다. 『金葉集』이하에 三首가 들어있다.

1123년(保安4년) 스토쿠천황(崇徳天皇)의 다이조에는 유키를 시키부다이후(式部大輔) 후지와라노아츠미쓰(藤原敦光), 스키를 사에몬노곤노스케(左衛門權

くにの民たとひ甘棠の詠をなすとも、忘るる事なかれ多くの年の風月の遊びにと作らせ給へりけるになむ、え忘れ参らせざりける」

18) 『中右記』天永2년11월5일, (增補史料大成, 臨川書店)

佐)후지와라노유키모리(藤原行盛)가 담당했다.<sup>19)</sup> 아쓰미쓰는 院政期の 一鴻儒로 일컬어지는 대학자로 藤原式家儒者の 始祖인 후지와라노아키히라(藤原明衡)의 아들이다. 式家は 類聚編纂을 가업으로 하는 유자의 집안으로, 아키히라(明衡)는 『本朝文粹』를 편찬했고, 아쓰미쓰는(敦光)는 『本朝無題詩』를 편찬했다. 유키모리는 유키이에(行家)의 아들로 『金葉集』의 가인이다.

1142년(康治元年) 고노에천황(近衛天皇)의 다이조에는 6대째 계속되던 유자 두명의 예가 깨어지고, 유키쪽을 가인이 불렀다. 즉 유키쪽을 사쿄다이부(左京大夫)후지와라노아키스케(藤原顯輔)가 부르고, 스키는 전회의 작가인 아쓰미쓰(敦光)가 불렀다. 아키스케(顯輔)는 歌道の 집안인 로쿠조가(六條家)의 시조인 아키스에(顯季)의 아들이다.

그러나 다음 2대는 다시 유자 두명의 예로 돌아갔다 즉 1155년(久壽2년) 고시라카와천황(後白河天皇)의 다이조에는 유키를 시키부다이후(式部大輔)후지와라노나가노리(藤原永範)가 부르고, 스키를 후지와라식가(藤原式家) 유자인 문장박사(文章博士)후지와라노시게아키(藤原茂明)가 불렀다. 1159년(平治元年) 니조천황(二條天皇)의 다이조에는 유키를 산기(參議)후지와라노도시노리(藤原俊憲)가 부르고, 스키를 다이가쿠노가미(大學頭)후지와라노노리카네(藤原範兼)가 불렀다.

나가노리는 후지와라남가(藤原南家)의 유자로, 承安2年白河尚齒會、治承2年別雷社歌合등의 작가로 활약했다. 千載集이하에 9수가 들어있다. 나가노리이후 남가 유자의 활약이 계속되고, 시게아키(茂明)이후 식가의 작가는 나오지 않는다. 도시노리와 노리카네는 남가의 유자다. 노리카네는 二條院花壇의 유력가 인이자 論客이었다. 歌学書인 『和歌童蒙抄』 『五代集歌枕』와 秀歌撰의 『後六々撰』을 선집했다. 千載集이하에 20수가 전한다.

로쿠조천황(六條天皇)부터 고토바천황(後鳥羽天皇)까지의 4대는 다시 유자 1명 가인1명의 예가 계속된다. 1166년(仁安元年) 로쿠조천황(六條天皇)의 다이조에는 유키를 후지와라노아키히로(藤原顯廣)가 부르고 스키를 후지와라노나가노리(藤原永範)가 불렀다. 아키히로는 후지와라노데이카(藤原定家)의 아버

19) 『袋草紙』는 崇徳天皇의 다이조에와카의 유키는 원래 顯季가 부를 예정이었는데 그가 출가했기 때문에 敦光으로 바뀌었다고 전한다.

지 도시나리(俊成)의 개명전 이름이다. 1168년(仁安3년) 다카쿠라천황(高倉天皇)의 다이조에는 유키를 나가노리(永範)가 부르고, 스키를 아키스케(顯輔)의 아들이고 『袋草紙』의 작가인 기요스케(清輔)가 불렀다.

안토쿠천황(安徳天皇)의 다이조에는 유키를 후지와라노스에쓰네(藤原季經), 스키를 우치마로류(内磨流) 유자인 후지와라노가네미쓰(藤原兼光)가 불렀다. 2년후 고토바천황(後鳥羽天皇)의 다이조에는 유키를 스에쓰네가 부르고, 스키를 남가 유자인 문장박사(文章博士) 후지와라노미쓰노리(藤原光範)가 불렀다. 미쓰노리는 다음에 열린 쓰치미카도천황(土御門天皇)의 다이조에에서도 유키 작가를 근시한다. 스키는 좌중변(左中弁) 후지와라노스케자네(藤原資實)가 담당하여 다시 유자 두명의 예로 돌아갔다.

스케자네는 가네미쓰(兼光)의 아들로 殷富門院大輔百首、元久詩歌會등의 작가이다. 스미요시(住吉)의 우타아와세를 주최하고 新古今集이하의 勅撰集에 9수가 들어있다. 준토쿠천황(順徳天皇)의 다이조에에서는 유키쪽 작가를 담당했다. 스키 작가는 가인 후지와라노아리이에(藤原有家)가 담당했다. 고히리카와천황(後堀河天皇)의 다이조에는 유키를 가인 후지와라노이에히라(藤原家衡)가 부르고, 스키를 스케자네의 동생 요리스케(賴資)가 불렀다.

시조(四條)와 고사가(後嵯峨)는 다시 유자 두명의 예로 돌아간다. 1235년(嘉禎元年)의 시조천황(四條天皇)의 다이조에는 유키를 前곤추나곤(權中納言) 후지와라노이에미쓰(藤原家光)가, 스키를 산기(參議) 스가와라노다메나가(菅原為長)가 부르고, 1242년(仁治3년)의 고사가천황(後嵯峨天皇)의 다이조에는 유키를 다메나가, 스키를 좌대변(左大弁) 후지와라노츠네미쓰(藤原經光)가 불렀다. 이에미쓰는 스케자네의 아들이고 쓰네미쓰는 요리스케의 아들이다. 쓰네미쓰는 寛喜4年の 石清水若宮歌合등의 作者이고, 続後撰集이하에 五수가 들어있다. 그의 일기 『民經記』에도 와카가 자주 등장하여, 소양을 엿볼 수 있다.

스가와라씨(菅原氏)로서는 유일하게 다이조에와카에 등장하는 다메나가는 쓰치미카토(土御門), 준토쿠(順徳), 고히리카와(後堀河), 시조(四條), 고사가(後嵯峨)의 5대의 侍讀을 근시하고, 「當代大才」 「文道棟梁」으로 칭해졌다.<sup>20)</sup> 스

20) 『岡屋関白記』寛元4年3月28日, (大日本古記録, 東京大学出版会)

가와라씨로서는 드물게 공경까지 승진했는데, 그의 출세는 섭관가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얻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 시조천황(四條天皇)의 다이조에와카의 작가로 다메나가를 추천한 사람도 섭정구조미치이에(九條道家)이고, 다메나가는 작가가 되고 싶은 욕심을 적극적으로 데이카(定家)에게 피로하고 있다.<sup>21)</sup> 1213년(建曆3年)内裏詩歌會의 詩作者이고, 統後撰集이하에 5首가 전한다.

이후 寬元4년 고후카쿠사천황(後深草天皇)의 다이조에부터는 유자 1명 가인 1명의 예가 계속되는데, 유자는 우치마로류(内磨流)스케나리(資業)의 자손, 즉 히노류(日野流)에서 나오고, 가인은 로쿠조류(六條流)에서 나온다.<sup>22)</sup> 그러나 로쿠조류(六條流) 가인이 남북조기에 단절하면서 1375년(永和元年) 고엔유천황(後圓融天皇)의 다이조에부터는 히노류(日野流) 유자 두명이 작가를 담당하게 된다.

다이조에 와카에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명한 유자가 모두 참가하고 있다. 와카를 부를 당시의 관직을 보면 시키부다이후(式部大輔)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문장박사와 다이가쿠노가미(大學頭)가 태반을 점한다. 즉 기본적으로 유자 중에서도 최고위의 사람이 선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3. 儀式歌와 儒者

다이조에 와카는 원래 유명한 가인이 불렀었고, 가단의 제1인자가 부르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위에서 살펴본대로 헤이안 중기부터 유자가 더해져서, 그 후 유자작가의 활약은 오히려 가인을 능가하고 있다. 유자가 다이조에 와카를 부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能書家 후지와라노고래유키(藤原伊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1) 『明月記』嘉禎元年六月廿八日己丑、「入夜殿下給御書、大嘗會檢校已下皆被改、歌人又可然、承保、寛治、天仁三代吉例儒者二人也、家光卿之外無其人、菅相公恐傍難由申、又非儒者家隆卿如何者、申云、當世作者之仁、去年具申入了、儒者二人最吉、尤可然候、菅相公内々不思放由年来承及」(国書刊行会)

22) 우치마로류 히로나리(広業)의 자손은 중세에 들어오면서 와카의 전통이 쇠퇴했다고 보여진다. 1123년(保安4년) 스토쿠천황(崇徳天皇)의 작가 후지와라노유키모리(藤原行盛)을 끝으로 더 이상 작가를 배출하지 않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히로나리류 자체가 가마쿠라시대 후기에 오면 더 이상 공경을 배출하지 못하고 쇠퇴해 버린다.

다이조에병풍은 중요하다. 유키 스키 좌우에 있다. 5척6첩, 4척6첩씩 좌우에 있다. 5척에는 본문을 적고, 4척에는 가나를 적는다. 박사 두명이 좌우로 나뉘어 본문을 생각한다. 이윽고 (繪)所의 박사가 와카를 부르는데 익숙해지면, 와카도 겸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읽는다. 23)

다이조에에 사용되는 중국그림 병풍의 본문에 들어가는 吉祥佳句를 적어내던 에도코로(繪所)의 문장박사가 와카에도 능숙해지면 아마토그림 병풍에 들어가는 와카까지 겸하게 된다는 것이다.<sup>24)</sup> 유자의 기용은 병풍노래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산조천황(三條天皇)의 다이조에 다음에 행해진 고이치조천황(後一條天皇)의 다이조에부터 보이므로, 병풍노래의 등장과 유자의 기용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상정할 수도 있지만, 본문을 적은 유자와 와카를 부른 유자가 일치하는 예는 실제로 많지 않다.<sup>25)</sup>

게다가 다이조에와카는 병풍노래뿐 아니라 기원이 훨씬 더 오래된 풍속노래와 함께 구성되고, 옛날부터 가인이 계속 불러오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병풍노래의 등장만으로 4년뒤에 일어난 유자의 기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유자가 다이조에와카에 참가하기 시작한 11세기초는 소위 국풍문화의 시대로 불기는 시기다. 이전까지 중시되었던 유교적인 중국풍의 정치문화를 대신하여 와카로 대표되는 일본적인 정치문화가 궁정사회에 자리잡기 시작한다. 와카가 조정의 의식속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시기는 후지와라노요시후사(藤原良房) 정권기로 알려진다.<sup>26)</sup> 『大嘗會悠紀主基詠歌』의 노래들은 닌묘천황(仁明天皇)

23) 『夜鶴庭訓抄』 「大嘗會屏風大事也、悠紀、主基とて左右あり、五尺六帖四尺六帖づつ左右にあるなり、五尺には本文を書、四尺にはかなを書、はかせ二人、左右にして、本文はかながへて、やがて所のはかせ歌よみなれば、歌も兼ねよむ也、さらねば別の人もよむ」(『続群書類従』第三十一輯上).

24) 藤田百合子は 이러한 고래유키의 설에 따라서 유자의 등장을 설명한다.(前掲 논문, p.58) 한편, 『代始和抄』에는 다이가쿠노가미, 문장박사등이 본문을 감신한다고 보인다. 「大嘗會挿頭の台御屏風以下の本文をば大学頭文章博士などかながへ申すこと也、風俗の和歌十首、この中に稲春の歌あり、又四尺の御屏風六帖、和歌十八首、歌仙ならびに儒林の人これを詠進す、或は兼作の例あり、日野一流には非成業の人不詠といへり、歌仙の例は顯輔、清輔、俊成、有家等也、齋場所の額、御屏風の色紙形は、行成大納言の子孫相伝して書進す」(群書類従, 第二十六輯)

25) 仁木夏実 前掲 논문, p.100. 다이조에와카의 작자와 달리, 본문을 적은 유자의 기록이 확실히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仁木가 확인한 6가지 예중에서 일치하는 예는 3가지다.

부터 전해지고 있다. 즉 요시후사 정권이후의 국풍화의 기운속에 다이조에와카의 체제도 정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 유자가 작가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자가 다이조에와카를 부르는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유자의 세계에도 와카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가인 못지않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유자가 작가에 처음으로 등장한 예는 1216년(長和5년) 고이치조천황(後一條天皇)때의 요시시게노다메마사(善滋爲政)이다. 그렇다면 가인이 부르는 선례를 깨고 유자인 다메마사를 기용한 사람은 누구일까. 고이치조천황(後一條天皇)의 외조부이자 당시의 권력가 후지와라노미치나가(藤原道長)의 일기에 「다메마사(爲政)와 요시타다(義忠)를 선정해서 다이조에 스키쪽 병풍노래를 부르게 했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즉 다메마사(爲政)를 작가로 기용한 사람이 미치나가임을 알 수 있다.<sup>27)</sup>

미치나가는 999년(長保元年)에 彰子入内屏風, 1001년에 東三條院詮子四十賀屏風을 만들게 했는데, 구성가인의 과반수가 『本朝麗藻』에 한시를 싣고 있는 和漢겸작가였고, 특히 學儒출신의 能吏들에게 겸작의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한다.<sup>28)</sup> 국풍문화의 유행은 한시와 와카의 대립뿐 아니라, 和漢兼작의 풍조를 낳고, 유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와카를 섭득하게 했다. 미치나가 시대에 있어서 유자가 와카를 부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풍조로 자리잡은 것이다.<sup>29)</sup>

그러나 단지 유자가 와카를 잘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다이조에 와카에 있어서 유자의 기용을 설명할 수 없다. 작가로 기용된 모든 유자가 가인을 능가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전문가인이 아닌

26) 木村茂光(1997) 『国風文化の時代』、青木書店、p.151

27) 『御堂閔白記』長和5년11월10일 「選定爲政与義忠大嘗会主基方御屏風歌、下給」(大日本古記録、東京大学出判会)이 때는 다메마사(爲政)와 요시타다(義忠), 둘에게 일단 명령이 내려졌지만 결국 다메마사(爲政)가 뽑히고, 요시타다(義忠)는 그 다음 고스자쿠천황(後朱雀天皇)의 스키쪽 다이조에와카를 부르게 된다.

28) 近藤みゆき(1996) 『和歌の展開—10世紀』岩波講座 『日本文学史』、p.157

29) 다이조에 와카에 처음으로 참여한 善滋爲政이나 그 후 이어진 藤原義忠, 藤原北家が 모두 신흥유가이고, 累代の 유가인 菅原氏와 大江氏は 각각 1명씩밖에 작가를 배출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藤原氏 출신의 신흥유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와카에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자를 기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이점이 따로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다이조에와카가 단지 일개인의 심정을 읊은 노래가 아니라, 천황 일대에 한 번 뿐인 즉위의식에 부르는 공적인 노래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정의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점은 격식이었다. 격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식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중요하다. 헤이안시대의 귀족사회에서 관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다음 일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014년(長和3년)에 행해진 고이치조천황(後一條天皇)의 御書始는 문장박사 오에노교슈(大江舉周)가 지(侍)를 근시했는데, 미치나가가 원래 지명한 사람은 지방수령의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후지와라노히로나리(藤原廣業)였다. 이유는 교슈가 5위의 문장박사(文章博士)이고, 히로나리가 正4위의 시키부다이후(式部大輔)였기 때문이다. 미치나가가 히로나리를 총애한 점도 있겠지만, 신분과 지위에 집착하는 귀족사회의 기본관념이 바탕에 깔려있다.<sup>30)</sup>

헤이안시대의 전문가인은 일반적으로 지계(地下)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유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위와 관직을 보지하고 있다. 다이조에와카의 세계에서 지계(地下)가인이 사라지고 대신 유자가 등장하는 것은, 의식에 있어서 격식을 중요시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sup>31)</sup> 실제로 이후 선정된 작가의 관위를 보면 4위 이상이 대부분이고, 1242년(仁治3년)이후는 압도적으로 3위 이상의 공경이 차지하고 있다.

처음으로 유자가 기용된 고이치조천황(後一條天皇)의 다이조에 이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유자가 반드시 작가로 기용되었고, 예외는 남북조의 난중인 曆應元年의 단 한 번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사회에는 유자가 다이조에와카를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준토쿠천황(順德天皇)의 歌學書 『八雲御抄』로부터 이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단 선행은 가인이 다이조에와카를 불렀다. 중고이후 유자가 반드시 섞였다.

30) 『小右記』 長和3년11월28일 「而舉周雖為博士，身為五品，仍以広業可為御博士」(大日本古記録、東京大学出判会)

31) 近藤는 長保期の 道長の 和歌事跡에 고금집이후 계속된 地下전문가인의 종언과, 이를 대신하여 궁정와카의 담당자로 등장하는 卿相및 道長家司群의 존재를 지적한다. (前掲논문, p.158)

延喜 近江 黒主 村上 備中 不知人 冷泉 兼盛 元輔, 能宣, 円融 能宣 中務, 兼盛,

三條天皇부터는 끊이지 않고 볼 수 있다. 花山天皇과 一條天皇은 알 수 없다.

長和元悠輔親主兼澄 同四年同輔親同爲政 長元同輔親同義忠

永承同資業同家經

治曆同實政同經衡 承保同實政同匡房 寛治同匡房同行家

天仁同匡房同正家

保安同敦光同行盛 康治同顯輔同敦光 久寿同永範同令明

平治同俊憲同範兼

仁安同俊成同 嘉応同永範同 寿永同清輔同兼光

元曆同季經同光範

建久同資実同資業 建曆同資実同有家

유키는 모두 近江, 스키는 丹波와 備中이 교대로 정해진다. 한사람은 반드시 유자이고, 한사람은 가인이다. 둘다 유자도 또한 예인가, 단 가인은 顯輔、清輔、俊成、有家등이다. 무릇 中納言이하다. 大納言이상은 미치지 못한다. 敦光、令明등 유자중에 그럴싸한 가인이 없더라도, 한사람은 반드시 유자로 한다. 이것이 自然流例이다.<sup>32)</sup>

유자중에 유능한 가인이 없는 경우라도 한 사람은 반드시 유자를 넣는 것을 자연적인 예로 보고 있다. 유자가 불러야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단지 유자가 부르는 선례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것이 고실로 굳어졌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듯이 들린다.

32) 『八雲御抄』日本歌学大系第三卷所収本、久曾昇 『校本八雲御抄とその研究』(厚生閣、1939) 第一編所収校本. 작가에 관해서는 『大嘗会悠紀主基詠歌』 『袋草紙』와 약간 차이가 보인다.

唯先例歌人詠レ之。自二中古一儒者必交之。延喜近江 黒主 村上備中 不知人

冷泉兼盛 元輔, 能宣, 円融, 能宣 中務, 兼盛, 自三条院所見不絶花山一条未勘之

長和元悠輔親主兼澄 同四年同輔親同爲政 長元同輔親同義忠 永承同資業同家經

治曆同実政同經衡 承保同実政同匡房 寛治同匡房同行家 天仁同匡房同正家

保安同敦光同行盛 康治同顯輔同敦光 久寿同永範同令明 平治同俊憲同範兼

仁安同俊成同 嘉応同永範同 寿永同清輔同兼光 元曆同季經同光範

建久同資実同資業 建曆同資実同有家

是皆悠紀ハ近江、主基ハ丹波備中替々也。一人ハ必儒者、一人唯歌人也。乍二人儒者又例事歟。只歌人ハ顯輔、清輔、俊成、有家等人也。凡中納言已下也。未及大納言已上。敦光、令明ナド儒者中ニモ無指歌人トモ一人ハ必可爲儒者也。是自然流例也。

다이조에와카를 당연히 유자가 부르는 것으로 여기는 풍조는 시조천황(四條天皇)의 다이조에와카의 작가 선정을 둘러싸고 섭정구조노리자네(九條教実)와 후지와라노데이카(藤原定家)가 주고받은 서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노리자네(教實)는 「유자 2명이 바친 시라카와(白河)·호리카와(堀河)·도바(鳥羽)의 예는 아주 吉例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 또한 한 명은 4위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공경 두명이 부른 예는 선례가 분명하지 않지만 한 번 있었던 예는 좋지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데이카의 자문을 구한다. 이에 대해 데이카는 유자 두명이 근시한 시라카와(白河), 호리카와(堀河), 도바(鳥羽)와 유자와 가인이 근시한 다카쿠라(高倉)의 예를 들면서 유자 두명을 기용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대답한다.<sup>33)</sup>

노리자네의 생각은 선례를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관위등의 형식에 집착하는 당시 귀족사회의 특징적인 정치감각을 잘 드러낸다. 고레이제이(後冷泉)이후 스투쿠(崇徳)에 이르기까지 6대에 걸쳐 유자 두 명이 읽고, 게다가 길레로 남은 점이 유자가 다이조에와카를 부르는 고실을 정착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지극히 和風일거라고 생각되는 다이조에와카의 세계에 유자가 가인을 능가하는 활약을 보였다는 사실은 유자, 그리고 유자로 체현되는 한시문학이 갖는 권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필요성을 갖게 한다. 문장경국사상의 붕괴와 함께 나타나는 한시문학의 퇴조, 이와는 대조적인 와카의 융성은 곧잘 지적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궁중의식인 다이조에와카에 유자를 기용한 사실은, 공적인 장면에 있어서 여전히 한시문이 갖는 전통적인 권위를 조정이 필요로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역할이 와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사적인 성격을 보완하고 격식을 더해주는 정도였다고 할지라도 말이다.<sup>34)</sup> 가인이 부른 노래가 전부 가나를 기초로 한 표기인데 비해서, 유자가 부른 노래는 한자표기가 많은 것도 이를 입증한다. 다이조에와카를 부른 유자의 존재는 그들의 정치적·

33) 『明月記』天福元年五月廿一日条. 공경 두명이 근시해서 불길한 예로 남은 다이조에는 建曆2년 順徳天皇의 예이다. 작가는 유자 藤原資実과 가인 藤原有家였다. 順徳天皇은 承久의 亂으로 佐渡에 유배당했다.

34) 加島吉春(1999) 「儒者と和歌—その制度的關係をめぐって—」 『平安朝文学研究』復刊 8、p.38

문화적 지위를 가지고, 다이조에라는 천황 즉위의식의 권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맺음말

천황 즉위시에 행해지는 일생에 한 번 뿐인 큰 제사인 다이조에는 유키와 스키 양쪽 사이고쿠에서 와카를 바친다. 이를 다이조에 와카라고 한다. 각각 풍속 노래 10수와 병풍노래 18수로 구성된다. 풍속노래는 악곡이 붙여져서 다이조에 의식중에 연주되고, 병풍노래는 그림이 더해져서 연회중에 장식된다. 다이조에 와카의 체계가 정비되고 작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시기는 산조천황(三條天皇)부터이다.

다이조에 와카의 작가는 원래 유명한 가인이 기용되었는데 고이치조천황(後一條天皇)부터 유자가 더해졌다. 이후 유자는 한명 내지 두명이 반드시 기용되었다. 이러한 선례가 계속되면서 중세사회에 들어오면 다이조에와카는 적어도 1명은 반드시 유자가 읽어야 한다는 고실이 정착한다.

유자가 가인을 대신해서 다이조에와카를 부르게 된 배경으로, 헤이안 중기에 和漢兼作의 풍조가 유행하면서 와카를 부를 수 있는 유자가 많이 배출된 점과 신분상의 우위를 들 수 있다. 가인보다 높은 유자의 지위가 격식과 체면을 중요시하는 조정의식 세계의 요구에 부합한 것이다. 작가로 선정된 유자는 대부분이 4位이상의 시키부다이후(式部大輔), 문장박사(文章博士) 등 당시 유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국풍문화의 시대를 거치면서 와카는 한시문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공적인 자리에 도입된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다이조에와카에 있어서 유자의 활약은, 한시문의 전통적인 권위가 귀족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다이조에와카는 의식노래였기 때문에 더욱 전통적인 권위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즉, 조정 의식에 내재하는 형식과 선례를 중시하는 정치관념이 유자작가의 기용 및 고실화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1 다이조에와카 작가 일람

大嘗會	年号	齋国	作者	齋国	作者
醍醐	寛平九		大内記小野美材		
朱雀	承平二		刑部少輔小野道風		
村上	天慶九		木工頭小野道風		
冷泉	安和元	悠紀	大監物平兼盛七首	主基	民部大丞清原元輔三首 神祇少副大中臣能宣一首
円融	天禄元	悠紀	神祇少副大中臣能宣	主基	兼盛能宣代内々相語云々
花山	寛和元	悠紀	大中臣能宣 清原元輔	主基	平兼盛 紀時文
一条	寛和三	悠紀	平兼盛	主基	
三条	長和元	悠紀	神祇大副大中臣輔親	主基	源兼澄
後一条	長和五	悠紀	祭主神祇大副大中臣輔親	主基	内藏頭善滋為政
後朱雀	長元九	悠紀	從三位大中臣輔親	主基	大學頭藤原義忠
後冷泉	永承元	悠紀	式部大輔藤原資業 (資)	主基	文章博士藤原家經 (広)
後三条	治曆四	悠紀	前甲斐守藤原実政 (資)	主基	前筑後守藤原經衡 (公)
白河	承保元	悠紀	左中弁藤原実政 (資)	主基	東宮學士大江匡房 (江)
堀河	寛治元	悠紀	左大弁大江匡房 (江)	主基	前阿波守藤原行家 (広)
鳥羽	天仁元	悠紀	太宰權帥大江匡房 (江)	主基	式部大輔藤原正家 (広)
崇徳	保安四	悠紀	式部大輔藤原敦光 (式)	主基	左衛門權佐藤原行盛 (広)
近衛	康治元	悠紀	左京大夫六条顯輔	主基	式部大輔藤原敦光 (式)
後白河	久寿二	悠紀	式部大輔藤原永範 (南)	主基	文章博士藤原茂明 (式)
二条	平治元	悠紀	參議藤原俊憲 (南)	主基	大學頭藤原範兼 (南)
六条	仁安元	悠紀	從三位藤原顯広	主基	式部大輔藤原永範 (南)
高倉	仁安三	悠紀	式部大輔藤原永範 (南)	主基	散位六条清輔
安德	寿永元	悠紀	散位六条季經	主基	左中弁藤原兼光 (資)
後鳥羽	元暦元	悠紀	散位六条季經	主基	文章博士藤原光範 (南)
土御門	建久九	悠紀	式部大輔藤原光範 (南)	主基	左中弁藤原資実 (資)
順徳	建曆二	悠紀	太宰權帥藤原資実 (資)	主基	大藏卿六条有家
後堀河	貞応元	悠紀	正三位六条家衡	主基	左中弁藤原頼資 (資)
四条	嘉禎元	悠紀	前權中納言藤原家光 (資)	主基	參議菅原為長 (菅)
後嵯峨	仁治三	悠紀	式部大輔菅原為長 (菅)	主基	左大弁藤原經光 (資)
後深草	寛元四	悠紀	左大弁藤原經光 (資)	主基	正三位藤原成実
龜山	文応元	悠紀	正二位藤原經光 (資)	主基	正三位六条行家
後宇多	文永十一	悠紀	從二位六条行家	主基	權中納言藤原資宣 (資)
伏見	正応元	悠紀	民部卿藤原資宣 (資)	主基	刑部卿九条隆博
後伏見	永仁六	悠紀	權中納言藤原俊光 (資)	主基	大藏卿九条隆博
後二条	正安三	悠紀	從二位藤原兼仲 (資)	主基	右中將九条隆教
花園	延慶二	悠紀	正二位藤原俊光 (資)	主基	大藏卿九条隆教

後醍醐	文保二	悠紀	正二位藤原俊光 (資)	主基	從二位九条隆教
光嚴	正慶元	悠紀	按察使藤原資名 (資)	主基	民部卿九条隆教
光明	曆応元	悠紀	正二位九条隆教	主基	同人
崇光	觀応元	남북조란으로 다이조에가 행해지지 않음			
後光嚴	文和三	悠紀	兵部卿九条隆朝	主基	権右中弁藤原時光 (資)
後円融	永和元	悠紀	権大納言藤原兼綱 (資)	主基	権大納言藤原忠光 (資)
後小松	永徳三	悠紀	按察中納言藤原資康 (資)	主基	左衛門督藤原資教 (資)
称光	応永廿三	悠紀	別当藤原有光 (資)	主基	左中弁藤原義資 (資)
後花園	永享二	悠紀	権中納言藤原兼郷 (資)	主基	同人
後土御門	文正元	悠紀	別当藤原益光 (資)	主基	藏人左少弁藤原量光 (資)
桜町	元文三	悠紀	正二位藤原光榮 (資)	主基	正二位藤原資時 (資)
桃園	寛延元	悠紀	権大納言藤原光綱 (資)	主基	太宰権帥藤原兼胤 (資)

\* 為政, 義忠-유자

資資-資業流 広-広業流 公-公業流, 이상은 内磨流藤原氏 유자

式-藤原式家유자 南-藤原南家유자 江-大江氏유자 菅-菅原氏유자

그 외 모두 가인

### 參考文獻

- 秋山光和(1941) 「大嘗会屏風について—平安時代『やまと絵』研究の一節—」 『美術研究』 118, 美術懇話会, p.89, 후일 『平安時代世俗画の研究』(1964, 吉川弘文館)에 「大嘗会悠紀主基屏風」로 所収
- 井上宗雄(1986) 「大嘗会和歌と六条家」 『講座平安文学論究』 第3輯, 風間書房
- 加島吉春(1999) 「儒者と和歌—その制度的關係をめぐって—」 『平安朝文学研究』復刊8, 平安朝文学研究会, p.38
- 木村茂光(1997) 『国風文化の時代』, 青木書店, p.151
- 近藤みゆき(1996) 「和歌の展開—10世紀」 岩波講座 『日本文学史』, 岩波書店, p.157
- 佐々木孝浩(1988) 「六条藤家から九条家へ—人麿影と大嘗会和歌—」 『芸文研究』 53, 慶応義塾大学芸文学会
- 相馬万里子(1990) 「大嘗会和歌について」 『神道古典研究』 12, 神道大系編纂会
- 仁木夏実(2005) 「大嘗会和歌と儒者」 『文芸論叢』 64, 大谷大学芸文学会
- 藤田百合子(1978) 「大嘗会屏風歌の性格をめぐって」 『国語と国文学』, 至文堂, p.59
- 八木意知男(1986) 『大嘗会和歌の世界』, 皇学館大学出版部

- ❖ 투고일 : 2009. 6. 30
- ❖ 심사일 : 2009. 7. 16
- ❖ 심사완료일 : 2009. 7. 28